

태평양, 화장품 시장침체 건딜까?

유일하게 매출액 0.5% 증가 ... 관련기업 대부분 상반기 경영 악화

국내 화장품 생산기업들의 2003년 상반기 경영실적이 직판시장의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2002년 상반기에 비해 나빠졌다.

화장품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의 2003년 1-6월 매출은 546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 줄었고 영업이익은 34% 감소한 386억원, 경상이익은 31% 감소한 385억원, 당기순이익은 31% 감소한 274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LG생활건강의 2003년 매출 목표는 연초 계획보다 6% 낮은 1조1000억원으로, 경상이익 목표는 27% 낮은 800억원으로 각각 수정했다.

또 직판에 주력하는 코리어나 화장품은 매출이 100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2% 감소함에 따라 32억원의 영업손실을 보았고, 경상손실과 당기순손실도 각각 63억원에 달했다.

한국화장품의 매출은 39% 감소한 485억원이었고 영업손실 11억원, 경상손실 8억원, 당기순손실 6억원으로 집계됐다.

화장품업계 1위인 태평양은 전년동기대비 0.5% 많은 5668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11.5% 증가한 1292억원, 경상이익은 12.5% 증가한 1395억원, 당기순이익은 15% 증가한 99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태평양을 제외한 대다수 화장품 생산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은 가열된 직판시장 경쟁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내수경기도 침체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직판시장이란, 화장품 생산기업이 판매원과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는 유통 형태를 말한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2002년 하반기부터 화장품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했다고 하며 내수경기 회복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3년 하반기에도 매출감소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Chemical Journal 2003/08/19>